

韓國傳統 纖維製品의 發掘 I

—毛製品(Carpet, Rug)을 中心으로—

國民大學校 師範大學 家政教育科
教授 閔吉子

目 次	
I. 序 言	Ⅲ. 日本祇園祭의 山鋒에 장식된 朝鮮 時代의 彩毛氈 (彩氈, 彩畫席, 朝鮮綴)
II. 文獻에 의한 諸般事項考察	IV. 結論

I. 序 言

「三國志」¹⁾의 扶餘의 屬, 「三國遺事」²⁾의 新羅의 五色氈氈, 「杜陽雜編」³⁾의 統一新羅의 五彩氈氈, 「日本書紀」⁴⁾이 百濟의 氈氈, 日本正倉院에 수장되어 있는 新羅의 毛氈(花氈)⁵⁾, 「高麗史」와 기타 文獻⁶⁾에 전하는 高麗의 織成, 氈類, 「尙方定例」와 기타 文獻⁷⁾의 朝鮮時代의 氈(靑氈, 紅氈, 藍氈, 各色氈, 黑氈, 白戎氈, 羊毛氈, 午毛氈), 罽, 毯, 日本祇園祭의 函谷鋒, 長刀鋒등에 장식된 朝鮮의 朝鮮綴(毛綴)등은 모두 毛纖維로 제조된 毛製品이다.

이들 毛製品中 屬, 氈등은 服飾材料로도 사용된 것이나 氈氈, 氈氈, 織成, 朝鮮綴은 敷物(毛席, 褥, carpet, Rug)로 주로 사용된 것이다.

氈도 種類에 따라 敷物로 사용된 것이 많다. 우리나라는 中國과는 달리 일찌기 毛製品이 많이

생산되었던 中央아세아, 契丹, 女眞族들과 같이 先史時代부터 毛製品을 사용하여 일찌기 毛製品이 발달하여 氈氈와같은 毛敷物은 唐나라사람에 의하여 그 巧麗함과 정교함에 찬탄을 받았었다.⁸⁾

그런데 이와같은 毛敷物이 遺品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안에 전하여져 있지 않아 그실상을 알수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歷代毛敷物에 대한 學問的 조사, 연구가 미진하여 오히려 近間의 一般的 경향으로는 毛纖維, 毛製品과 특히 毛敷物은 우리나라와는 他山之石의 관계인듯 인식되어가기에 까지 일오게 되었다.

다만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毛敷物에 대하여는 李如星先生이 「氈氈는 褥」이라고 한 단편적인 「朝鮮服飾考」⁹⁾의 내용과 筆者가 中國文獻을 참고로하여 新라의 氈氈와 百濟의 氈氈을 간접적으로 제작

1) 「三國志」魏志東夷傳夫餘傳
 2) 「三國遺事」萬佛山條
 3) 「歷代小史」卷之二十五 「杜陽雜編」.
 4) 「日本書紀」欽明天皇十五年條
 5) 鈴木清民, 「古代對外 關係史の研究」p.424. 吉川弘館, 昭和 61年.
 6) 「高麗史節要」, 「增補文獻備考」, 「東國通鑑」.
 7) 「六典條例」, 「經國大典」, 「度支準折」, 「萬機要覽」.
 8) 「杜陽雜編」
 9) 李如星 「朝鮮服飾考」白楊齋, p.301. 1947.

양식을 상고하여 본 小考察¹⁰⁾이 있을 뿐이었다.

필자가 우리나라의 長久한 毛製品 製造史를 상고 할때 우리나라에는 틀림없이 土俗化되어 傳統化된 毛製品의 傳承物이 있을것이라는 착상이 數年前부터 들게되었다.

그리하여 筆者는 數年前부터 三國時代부터 中國과 日本에 輸出되어간 우리나라의 毛製品이 遺存된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중 1991年 7月 17日 日本의 祇園祭의 山巡行時 函谷鋒外 여러 鋒의 裝飾으로 사용되어온 朝鮮時代의 敷物類(Carpet, Rug)를 發見하게 되었다. 各山鋒이 페르시아, 터키, 중국, 뉴지랜드産인 世界的 名品 Carpet, Rug으로 장식된 중에 朝鮮産 Carpet도 同列에 육중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日本에서 이것을 朝鮮綴로 命名되어있다.

同日 祇園祭名品展示室의 好意로 朝鮮綴 數点を 직접 관찰하고 그 製織樣式을 조사 고찰하게 되었다.

素材, 紋樣, 製織樣式을 中心으로 조사하였다.

韓國의 土俗의인 傳統性이 一目瞭然하게 나타나 있는 長久한 韓國 毛敷物(毛席 carpet)史의 産物임이 나타났다.

귀국후 韓國敷物(毛席 carpet)의 製造歷史, 紋樣樣式과 製織樣式을 文獻의으로 再考察하여 日本에서 朝鮮綴로 命名된 朝鮮時代의 毛敷物의 歷史的, 製造樣式的, 根幹을 찾아 잊혀진 韓國傳統敷物을 發掘하여 그 傳統을 傳承시킬수있는 作業의 基礎를 마련하고자 하여 文獻的, 實驗的, 考證的 考察을 종합하여 本考로 간략하여 整理하였다.

II. 文獻에 의한 諸般事項考察

1. 新羅와 統一新羅의 氍毹

「三國遺事」萬佛山條에는 신라의 眞年王(579~632)이 唐나라 代宗皇帝에게 모낸 佛敎的工藝品인 「萬佛山」의 바닥깔개(carpet, Rug)로 五色氍毹를

工作하게 하여 사용한 기록이 있다.

唐에서 이공예품을 받고 보는데 마다 그 정교함에 탄복하였다고 하니 거기에 사용된 氍毹 역시 一品이었을 것이나 이에 대하여 제직양식이 설명되어 있지않아 오늘날까지 그실상을 알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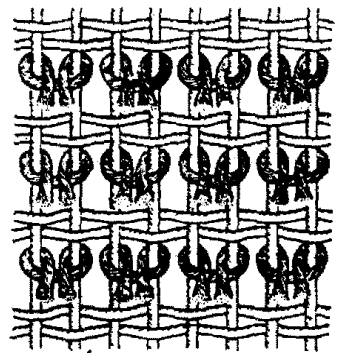
다만 李如星先生이 이氍毹에 대하여 褥(욕)이라고 한 내용만의 「朝鮮服飾考」의 내용만 전하여져 있다.

「集韻」에서 「褥, 藉也」라고 하여 깔개라고 하여 氍毹가 바닥에가는 敷物로서 오늘날의 카펫(carpet), 러크(Rug)類인 정도로 알고 있을뿐이다.

「南州異物志」에서는 氍毹는 羊毛과 雜群獸의 毛로 짜고 문양은 鳥獸人物雲氣에 鸚鵡가 멀리 바라다보이게 軒軒히 나는 형상이라고 하여 모섬유로된 문양직임이 나타나 있다.

太田英藏선생은 「髻類」를 들어 西戍에서 생산되고 敷物이며 舞筵類인데 구유는 舞筵과 같은 立毛 緞通(carpet) 風이 아닌것 같다고 하였다.¹¹⁾

카펫은 여러가지 제조양식으로 제직되고 있는데 크게 區別하면 (그림-1), (그림-2)와 같이 立毛된 것과 (그림-3)과 같이 入毛되지 않고 제직된 것이 있는데 氍毹는 (그림-3)과 같이 제직된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림-1) The Ghiordes knot.

廣韻」에서도 氍毹는 毛席이고 褥이라고 하였다.

中國의 吳淑生은 氍毹는 阿拉伯語(아랍어)라고 하였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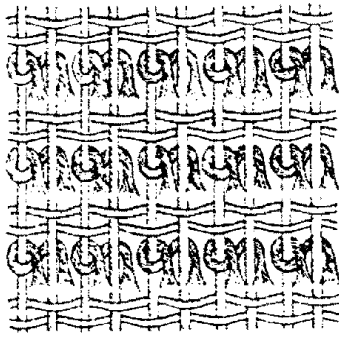
高漢玉은 氍毹와 氍毹는 毛毯라고 하였다.¹³⁾

1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集(織物工藝篇)」, p.101,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1年 12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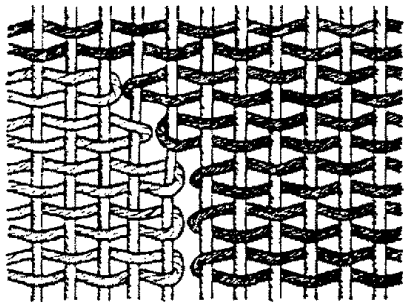
11) 太田英藏, 「太田英藏染織史著作集, (下卷)」, pp.73~74, 文化出版局

12) 吳御牲, 「中國染織史」, p.116, 台北南天書局, 中華民國76年.

13) 高漢玉, 「中國歷代染織圖錄」, p.19,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그림-2) The senneh Knot.



(그림-3) Kelim-weaving

담에 대하여「廣韻」에서는 毛席이라고 하였다. 결국 氍毹, 褥, 毛席, 毳(毛毯)이 다같이 카펫, 러그와 같은 中國異域의 數物을 持稱한 것이다.

「大唐西域記」에서는 波期國, 天竺地域에서 생산된다고 하였다.

中國人들은 氍毹를 六朝당시 西地地區에서 생산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氍毹는 아랍지역의 카펫에 대한 呼稱을 音譯하여 漢字로 적은 것이며 이것이 中國, 우리나라 日本에서 통용된 毛數物의 명칭인 것으로 본다.

「杜陽雜篇」에는「新羅國에서 五彩氍毹를 獻하였는데 그 制度가 巧麗하여 一時에 冠絶하고 每方寸內에 歌舞伎樂, 列國, 山川의 像이 있으며 微風이 室內에 불어들어 蜂蝶이 그위에 날아움직이고 燕雀이 춤추며 나는듯한데 이모든것이 사실 일어나 있는 듯 보인다」고 하였다.

氍毹에 대한 各種文獻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自然과 生活를 寫生的으로 文樣化하여 立毛(pile Knot) 없이 製織하여 紋樣을 나타낸 紋織이며 素材는 毛이고 數物(carpet 또는 Rug)의 種類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일반적인 카펫, 러그의 製織양식상 이것은 타피스트리 技法의

(Kelim Weaving, Tapestry)로서 製織되었었다고 볼수 있다.

이 製織양식은 보통 경사와 위사의 굵기의 비가 1:2에서 1:3 이상으로 한 平組織을 기본으로 한 製織양식인데 紋과 地, 紋과 紋을 각기 다른 色糸로 各名製織하여 連綴하며 製織 하기때문에 그구획선에 경사방향으로 틈(gaps)이 생기게 되며 이틈의 조화가 이조직의 특성을 이룬다.

日本에서는 이러한 製織양식을 綴織이라고 하고 毛로 製織된것을 毛綴이라고 한다. 紋織으로 된 綴織이라고 보아 綴錦이라고도 한다. 中國에서는 刻絲라고 한다.

2. 百濟의 氍毹

「日本書記」欽明天皇十五年(554)條에 百濟에서 好錦二匹와 氍毹一領을 보낸기록이 있다.

그이상의 설명은 없어 그것이 어떠한 樣式으로 製織된것인지 묻는다. 그리하여 他地域의 氍毹를 참고하여 예측하는데 그쳤었다.

「通俗文」에는 氍毹의 精巧한것을 氍毹이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氍毹는 氍毹이다.

「太年御覽」에서는「魏略」을 들어「大秦國에서는 羊毛, 木皮, 野蠶絲로 氍毹를 만드는데 五色, 九色이 된다」고 하였다.

北史에서는「波欺國에서 綾錦疊과 氍毹氍毹」이 난다고 하여 氍毹와 氍毹를 구별하여 기술하여 차이가 있는것이 나타나 있다.

吳淑生은 氍毹는 波斯語(페르시아어)라고 하였다. 그리고 西北地區의 毛織品이라고 하였다.

氍毹는 氍毹와는 구별되나 畵世도에서 차이가 날뿐 기타의 紋樣, 製織樣式에는 大差가 없는것으로 보아도 될것 같다.

「太年御覽」에서는「廣志」를 들어 漢에서는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中國에서는 唐代에 이와같은 製織양식의 織物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확실하게 나타나는 때는 宋代이며 그 素材가 絹이 주종을 이룬것이다.

太田英藏선생도 漢, 唐은 中央아세아와는 製織方法이 같지않았던것을 시사하였다.¹⁴⁾

14) 太田英藏, 「太田英藏 染織史著作集上卷」, p.74, 文化出版局 昭和61年.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아세아 지역과 같은 양식의 氈, 氈, 氈이 제직된 점에서 漢, 唐地域과는 毛織物에 있어서 그 製織樣式 차이가 있는 地域이 있음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신라의 氈가 唐나라에 보내어져서 신라의 特産으로서 찬탄의 대상이 된것이라고 생각된다.

3. 新羅의 氈(花氈)

布目順郎선생은 日本正倉院의 西寶庫의 色氈6號가 新羅의 것이라고 하였다.¹⁵⁾

松本包夫先生도 正倉院의 花氈은 모두 中國 朝鮮의 渡來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花氈中에 新羅産인듯한 付箋이 붙은것이 있다고 하였다.¹⁶⁾

鈴木清民선생¹⁷⁾은 正倉院의 花氈에는 付箋에 「行卷韓舍價花氈一念物得追弓」라고 적혀 있다고 하였다.

北倉의 紫色長方形毛氈에도 「紫草娘宅紫稱毛一念物及綿乃得進斤今綿一五斤長七尺廣三尺四寸」이라고 黑書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付箋은 商品의 付札로서 行卷韓舍價는 신라인의 이름과 제조소를 쓴것이라고 하였다. 신라에는 毛氈을 제조 판매 交易하는 官營公방과 宅이라고 하는 귀족, 호족의 公방이 있었다고 하고 신라의 氈은 唐나라에도 알려진 特産品이라고 하였다. 正倉院의 花氈은 縮絨되어 畫染되어 있다. 數物이나 氈, 氈과는 제조양식이 다른것이다.

4. 高麗의 氈, 彩毯, 織成, 床褥

① 氈과 彩毯

「高麗史」와 各種文獻¹⁸⁾에 氈, 五色氈, 靑氈등이 幕, 모자, 廬(천막), 御輦의 장식, 席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東國通鑑」卷31에 高宗18년에 獻上된 御輦에 五色氈이 덮였는데 金銀錦繡로 장식되어 사치함이 궁극에 달하였다고 한다. 화려한 氈이 제조 사용

된 것이다.

氈에 대하여 「中文大辭典」에는 「氈云異名曰毛毯, 毛毯之異名曰毛褥」이라고 있다. 모두 數物 곧 carpet, Rug類를 말한것이다. 그러나 氈은 數物外에 服飾材料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氈은 氈으로도 쓴다.

高麗 崔滋의 「三都賦」에는 「公御들의 邸宅이 10리에 뻗었는데 엄청나게 큰 樓閣에는 鳳凰이 춤추는듯 서늘한 마루 따스한방이 즐비하게 가추어 있어 金碧이 휘황하고 丹青이 늘어섰네, 비단으로 기둥싸고 彩담으로 땅을 깔고……」라는 기록이 있어 바닥에 카펫, 毯類를 깔고 生活한것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數物(carpet Rug)의 使用 史上 귀중한 기록이다.

고려시대에는 契丹, 女眞등 氈工이 投化되어 더욱 毛氈製造가 활발하였던것 같다. 거란으로부터 1000頭의 羊이 고려에 들어온 기록도 고려에서 羊毛織物이 盛하게 되어간것을 나타내어 주는 역사적 기록이다.

고려에 이르러 문헌상에 氈이 많이 나타나있다. 中國에서도 唐代의 毛物로 北과 西北一帶에서 氈, 毯이 생산된 기록이 文獻에 나타난다.

② 織成, 褥

「高麗史」惠宗二年(945年)條에는 後晋에 보낸 物目中에 紅地金銀五色綿織成龍床褥이 있다.

織成은 「製織한다」라고 하는 動詞的인 것과 製織樣式에 의한 織物名, 즉 名詞的인 것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상기의 織成은 織物名으로 보는 경향이 다.

高麗時代에 새로이 나타나 있는 織物名이다. 그리고 組織名이기도 하다.

「太年御覽」布帛部三에는 「廣雅」를 들어 天竺에서 細織成한다」고 하였고 「魏略」에 大秦國에서 水羊毛, 木皮, 野蠶糸로 織成이난다고 하였다. 그리

15) 布目順郎, 「絹と布の 考古學」, p.218, 雄山閣, 昭和63年.

16) 松本包夫,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p.167, 紫紅社, 昭和59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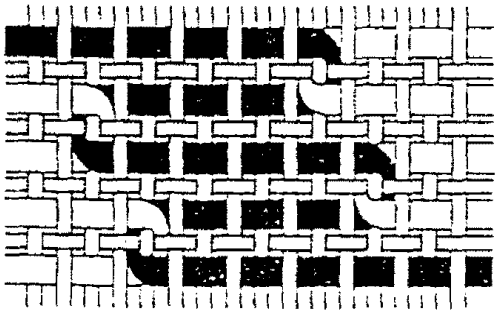
17) 鈴木清民,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p.424, 古川弘文館(日本, 東京), 1986.

18) 注 6)과 同

고 金織成帳도 생산된다고 하였다.

고려에서 제작한 織成이 곧 大奏에서 제작한 金織成이다.

織成이 基本組織은 平組織(變化平織)이다. 다만 서로 다른 色系로 紋과 地, 紋과 紋을 구획하며 紋樣을 서로 연결하며 제작하는것이 特性이다.



(그림-4) 織成

(그림-3)은 Kelim-weaving(Turkish)이라고 하였는데 이와같은 製織樣式을 日本에서는 綴織つづ木라고 하고 이러한 제작양식으로 제작한 직물을 綴錦이라고도 하고 단독으로 綴이라고도 한다. 고려의 組織名으로는 「織成」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中國에서는 日本에서 綴織으로 명명된 제작양식과 같이 제작한것을 刻絲, 繹絲, 剡絲라고 한다.

그러면서 織成을 綴織, 刻絲(繹絲, 剡絲)와 같이 보는 경향이다.

그러나 사실 織成과 綴織, 刻絲가 반드시 같은것은 아니다.

日本에서는 織成을 (그림-4)와 같은것, 綴織을 (그림-3)과 같은것으로 區別하는 경향도 있다.¹⁹⁾

곧 織成은 綴織의 一種으로 區別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太田英藏선생은 대체로 織成과 綴織을 거의 同類로 보고 있다.²⁰⁾

日本에서 綴織을 제작하기 시작한것은 明和安永四年(1775) 경부터인것일것으로 보고 있으며 綴織이 거론된 때도 祇園祭의 世界各國의 카펫이 話題가 되기시작한 安永以後 부터라고 한다. 그리하여 그이전에는 어떤 呼稱으로 되어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織成은 中國에서는 「後漢書」與服志에 「九卿以下皆織成」이라고 보이고 「太平御覽」에도 織成의 項이 있으나 이제작기법의 源은 中央아시아를 中心으로 하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四方의 地域에 그 지역의 사람의 이동과 더불어 전파된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중앙아시아인을 祖上으로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土俗織物로서 이어져 제작되고 있다.

錦이 세계적으로 연구되기 이전에는 歐美의 學者들은 紋織은 중앙아세아, 서역의 타피스리(Tapestry weave)에서 부터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日本에서 綴織이라고 명명한것이 곧 타피스리기법의 종류이고 그 命名年代도 織成으로 命名된 以後임으로 綴織으로 織成을 설명하기보다 織成, 刻絲로 綴織을 설명하는것이 製織樣式을 설명하는 순서가 된다.

綴織은 織成, 刻絲가 우리나라 中國으로부터 日本에 알려진 이후 日本에서 제작된 織成類, 刻絲類의 제작직물에 붙여진 織物組織과 織物名이기 때문이다.

日本에는 「東大寺獻物帳」에 「七條織成樹皮色袈裟一領」이라는 기록이 있고 이에 해당된다고 보는 遺物로 正倉院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은 日本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다.

제작양식은 오늘날 日本에서 綴織이라고 명명한 제작양식에 일치되지 않으나 그 要素를 多分가지고 있다²¹⁾고 하여 織成과 綴織사이의 제작양식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日本에서도 반드시 紋과 紋, 紋과 地の 구획선에 경사방향으로 벌어져 있는 하쓰리孔(はつり孔)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한 無紋의 平織의 變化組織으로 경사의 굵기보다 위사의 굵기가 적어도 3배이상으로 하여 제작된 직물에 대하여도 綴織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本項에서는 織成과 綴織의 제작양식의 차이보다는 命名의 年代에 더중점을 두어야 고려의 織成의 實體가 풀려진다.

그리하여 本項에서는 결론적으로 除一設하고

19) 增補版 「服裝大百科事典」, p.460, 683, 文化出版局, 平成2年.

20) 상계서 太田英藏, p.301-308.

21) 상계서 太田英藏, p.301.

織成은 中央아세아, 서역에서 毛와 기타섬유자료로 紀元初에 이미 盛하게 제작되었던 제작기법이라는 데 焦點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직기법은 中國地域에서 발생된 제작기법에 들지않는다는 것도 付記한다.

다만 中國에서는 宋代에 이기법의 織物을 盛하게 제작하며 刻絲라는 命名을 붙인것뿐이며 「廣雅」 「魏略」등의 기록年代에는 다만 天竺, 大秦의 織物로서 소개하고 있는 상태였다.

他田 温은 「麗宋通交の一面」이라고 題한 論考²²⁾에서 高麗와 宋間에 進奉된 物品에 대하여 「質, 量的으로 宋人에게 강하게 感銘을 주어……」, 「工藝技術面에서 거의 宋에 匹敵하는 産品을……」, 「高麗朝의 中原에의 進奉이…… 工藝品에 重点을 바꾼것은 놀라움고…… 고려조의 先進的側面이 여실이 나타난다…… 신라후기 染織과 금속공예에서 보는 발전이 그대로 존재된것이 보인다」, 「…… 高級織物로 고려인은 中原에 큰 自負를 가졌고 宋人을 놀라게한 優品을 大量 恒時的으로 産出하고 있었다」, 「今日 고려의 금속기나 織物이 남아 전하는것은 극히 적으나…… 一, 二를 보아도 호화한것이 추찰되고 고려인이 中國의 宮廷工藝의 最高級品에 착안하여 그것에 뒤지지 않는 獨子の 工藝品을 産出하고……」등의 諸考의 편편이 수없이 눈에 뜨인다.²³⁾

특히 宋에 대한 進奉品(交易品)이 工藝的 染織品이 태반인가운데 本考의 主題가되는 紅地金銀五色線織成龍床褥 곧 宋王의 龍床의 敷物(Carpet, Rug)인 織成이 宋에서는 刻絲라는 명칭으로 宋안에서 제작되어 오늘날까지 그 遺品이 多數전하여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유명한 가운데 있는 직물이 宋에 존재하는 가운데서 宋人의 감명을 받은 染織品이었던 점에서 高麗의 織成의 特性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직성의 技法이 朝鮮時代로 이어져서 日本祇園祭의 名品染織品中の 敷物의 一種인 朝鮮綴(Carpet, Rug)를 제작하였을 것이다.

5. 朝鮮時代의 羊毛氈, 午毛氈, 毯, 彩畫席.

「向方定例」에서 准折式用品으로 涼踏子에 羊毛氈이 사용된것으로 나타나 있다.

席踏常에도 羊毛氈이 사용되었다. 産室廳排設과 護産廳排設에도 羊毛氈이 사용되었다. 敷物로 사용된 例이다.

毛氈은 服飾用品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用途에 따라 製織樣式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에 제조되어 日本에 나가 오늘날까지 正倉院에 보존되어 있는 毛의 縮絨布에 국한된 毛纖維製品의 命名이라고 보지 않는다. 縮絨布는 氈(毯)의 種類中의 一種이라고 본다.

朝鮮時代에는 「經國大典」에 氈匠등이 있었던 기록이 있어 用途에 따른 毛製品匠이 다양하게 있어 毛製品을 盛하게 하였던것이 나타나 있다.

「經國大典」에는 禁制中에 薰下宮以下始姻에 紗羅段계담을 사용하게 규정한 기록이 있어 계와 담이 一般的으로도 사용되었던것이 나타나 있으니 그 수요에 따라 國內에서 제조되었던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1991年 筆者는 「朝鮮時代의 皮, 毛物에 대한 研究」로 提한 論考²³⁾를 내면서 日本에서 毛綴, 朝鮮綴로 命名된 朝鮮의 毛敷物이 朝鮮時代의 文獻上에 어떠한 命名으로 기록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런데 氈, 毯, 氈外에는 他의 毛製品이 나타나 있지 않다. 계는 신라시대, 거슬러서는 부여시대 衣料로 사용되었던 精細毛織物名임으로 敷物의 명칭이 아닌점에서 毯, 氈中에 日本에서 毛綴(朝鮮綴)로 命名한 毛製品이 있다고 볼수 있다. 窺이 더 세분한다면 氈보다 毯이 더근접한것 같다.

毯, 毯子는 毛布, 毛席子(敷物, carpet, Rug)의 命名으로 우리나라, 中國에서 넓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六典條例」의 禮典과 「接倭」, 「通信」등으로 區分되어 接倭의 項에 「對馬主年例遺船…… 虎皮, 綿袖, 黑麻布, 白苧布, 白木, …… 花席」등의 日本에

22) 池田 温, 「麗宋通交の一面(東汗史·考古學論集)」.

23) 閔吉子, 「朝鮮時代의 皮, 毛物에 대한 研究」, 國民대학교 教育논총, 제11집, 1191.

보낸 物目이 있다.

通信條에 「……大纒子, 大緞子, 白苧布, 生苧布, 白綿, 黑麻布, 虎皮, 彩花席…… 滿花度, 紋方席, 單席」등이 있다.

朝鮮初부터 日本은 朝鮮의 織物類를 다량 수입하여 갔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花紋席만이 전승되어 日本에 보낸 彩花席, 滿花席, 紋方席등을 현재의 기준에서 生覺하여 毛物의 數物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게만 단정할수는 없을것 같다.

筆者는 1992年 1月 日本에서 經系와 韓系의 굵기의 비가 1:2 내지 1:3 정도가되게 變化平組織으로 제직한 織成類에 鶴, 松, 牡丹紋등이 畫染된 얇게 제직되어 日本에서 茶席의 數物(Rug)로 사용된 朝鮮製品으로 判明된 毛物을 조사하고 왔다, 이것은 後日의 論考에 발표할 예정이다. 筆者는 이 遺品을 고찰하고 이것 이 花席, 彩花席, 彩畫席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日本의 太田英藏先生도 彩花席과 毛緞과를 聯關하여 論考를 전개한것이 있다.

오늘날 日本에 남아있는 朝鮮時代의 毛數物(carpet, Rug)들의 基本製織樣式은 경사와 위사의 굵기가 1:3 이상인 變化 平組織을 기본으로 한 織成類(日本에서 말하는 綴織)이다.

「六典條例」의 工典條에 營造司에서는 宮室의 革皮, 氈, 絨等事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하여간 이와같은 工匠에서 日本에 수없이 많이 전하여진 毛數物도 제조되었을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日本에 남아 있는 조선의 毛數物들을 통하여 조선시대의 製織樣式도 立毛物(pile)이 아닌 織成類라는 것이 입증된다.

日本의 「山鋒由來記」에는 「綴氈」이라고 하는 織物名이 나와 있다고 한다.

綴氈은 綴織으로된 氈이라는 뜻일것이다. 여기에 서 氈은 纖維物製造의 樣式을 설명하는 縮絨(Felting)의 의미가 아닌 一種의 數物이라는 名詞의 뜻으로 사용된것이 확실하다. 氈의 用例가 여기에 이르면 朝鮮의 氈匠에서 日本에서 말하는 綴氈이 제직되었다고 하여도 설득력이 충분한 것으로 본다.

Ⅲ. 日本祇園祭의 山鋒에 장식된 朝鮮時代의 彩氈(Carpet, Rug)

1. 日本의 祇園祭와 山鋒의 朝鮮彩氈(carpet, Rug, 朝鮮綴, 毛綴)

祇園祭는 日本京都에서 每年 7月 1일부터 29日까지 行하는 八坂神社의 祭事이다.

이 祭事는 清和天皇의 貞觀11年(869年)에 京洛에 疫病이 流行하여 庶民間에 病人, 死人이 數를 헤아릴수 없었다고 한다.

이때 卜部一良麻宮의 卜占으로 午頭天王의 災殃이라고 하여 祇園社의 祭神(午頭天王, 素盞鳴命)을 信仰하고 病魔退治를 祝願한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祭事에는 日本全國의 數와같은 66本の 山鋒(きつき)를 만들어 神泉苑(中京區御池通大宮)까지 이르게하여 惡疫을 쫓게하는 御齋會를 行하였다고 한다.

초기에는 疫病이 流行할때만 行하였으나 丹融天皇의 天祿元年(970年)부터 每年六月14日에 行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祭事는 日本三大祭事의 하나로서 近年(昭和37年5月)에 이 行事に 사용되어온 山鋒二十九基가 重要民俗資料로서 指定되었다.

이 祭事의 크라이막스는 山鋒巡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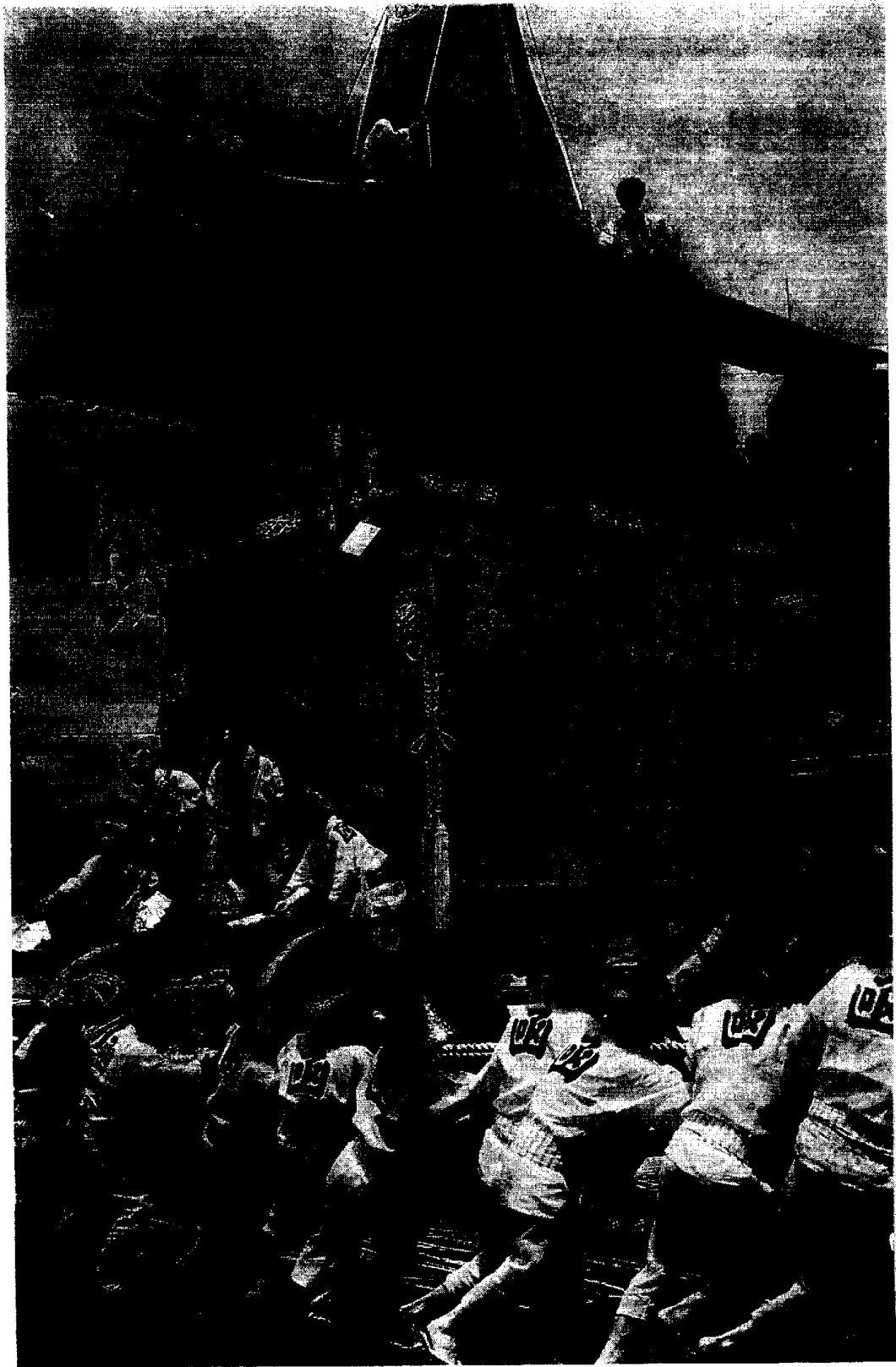
이 祭事는 桃山時代부터 江戸時代に 이르러서는 町象의 階級이 勃興하여 舶來된 珍奇한 染織品 곧 中國의 綴錦, 刺繡, 朝鮮毛綴, 中近東의 綴通, 印度의 印花布, 사라사, 地元西陣의 화려한 染織品을 山鋒(사진-1)에 장식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歷代山鋒에 장식되었던 染織品에 오늘날까지 귀중하게 보존되어 祇園祭의 山鋒은 오늘날에 이르러 「움직이는 美術館」이라고 일컫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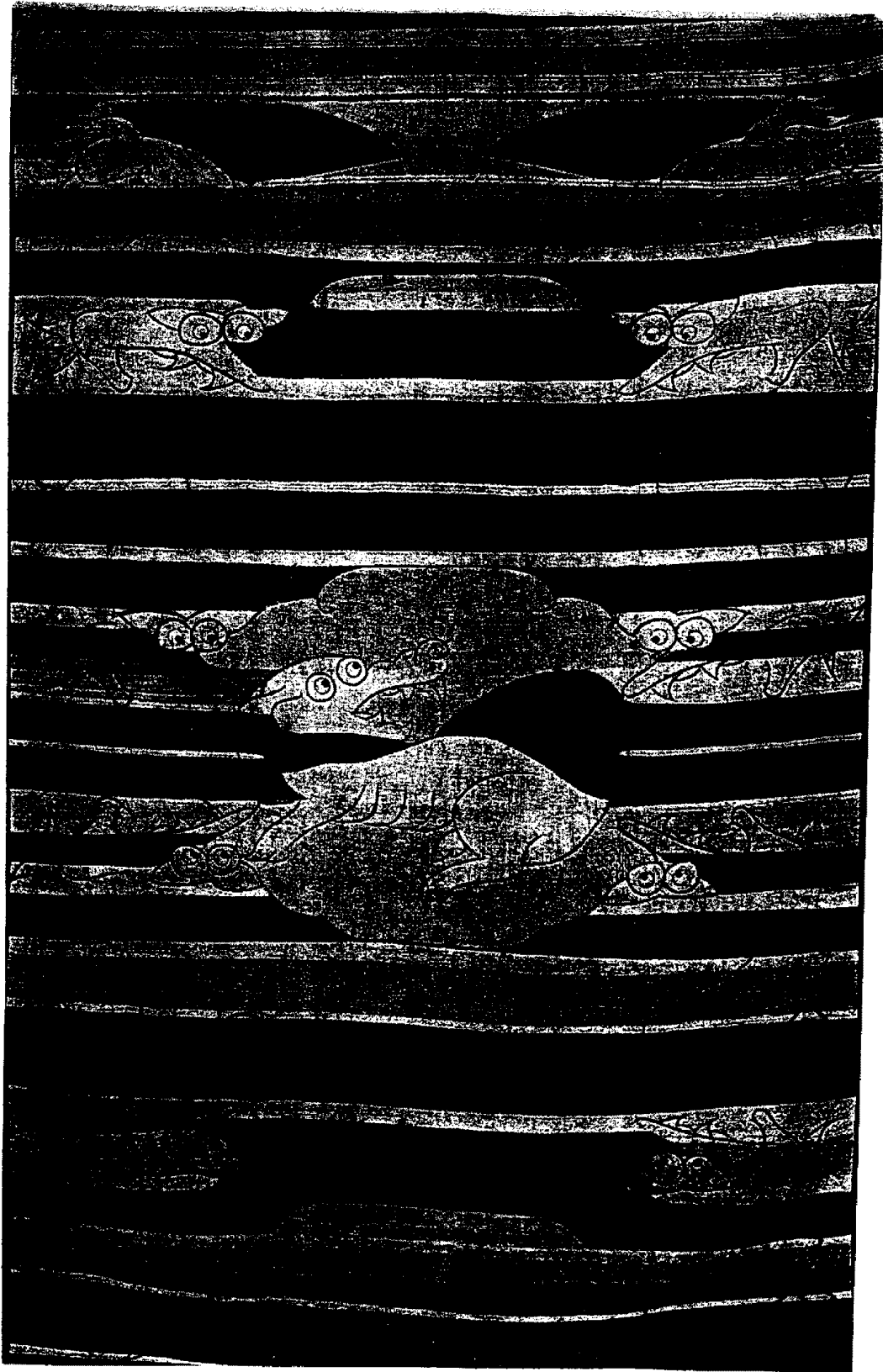
2. 朝鮮綴

朝鮮綴은 17世紀 우리나라의 朝鮮時代に 朝鮮에서 製織되어 日本德川幕府와의 國交樹立 直後 織物의 輸出이 本格化되었던 時期에 日本人들이 조선에서 수입하여간 毛毯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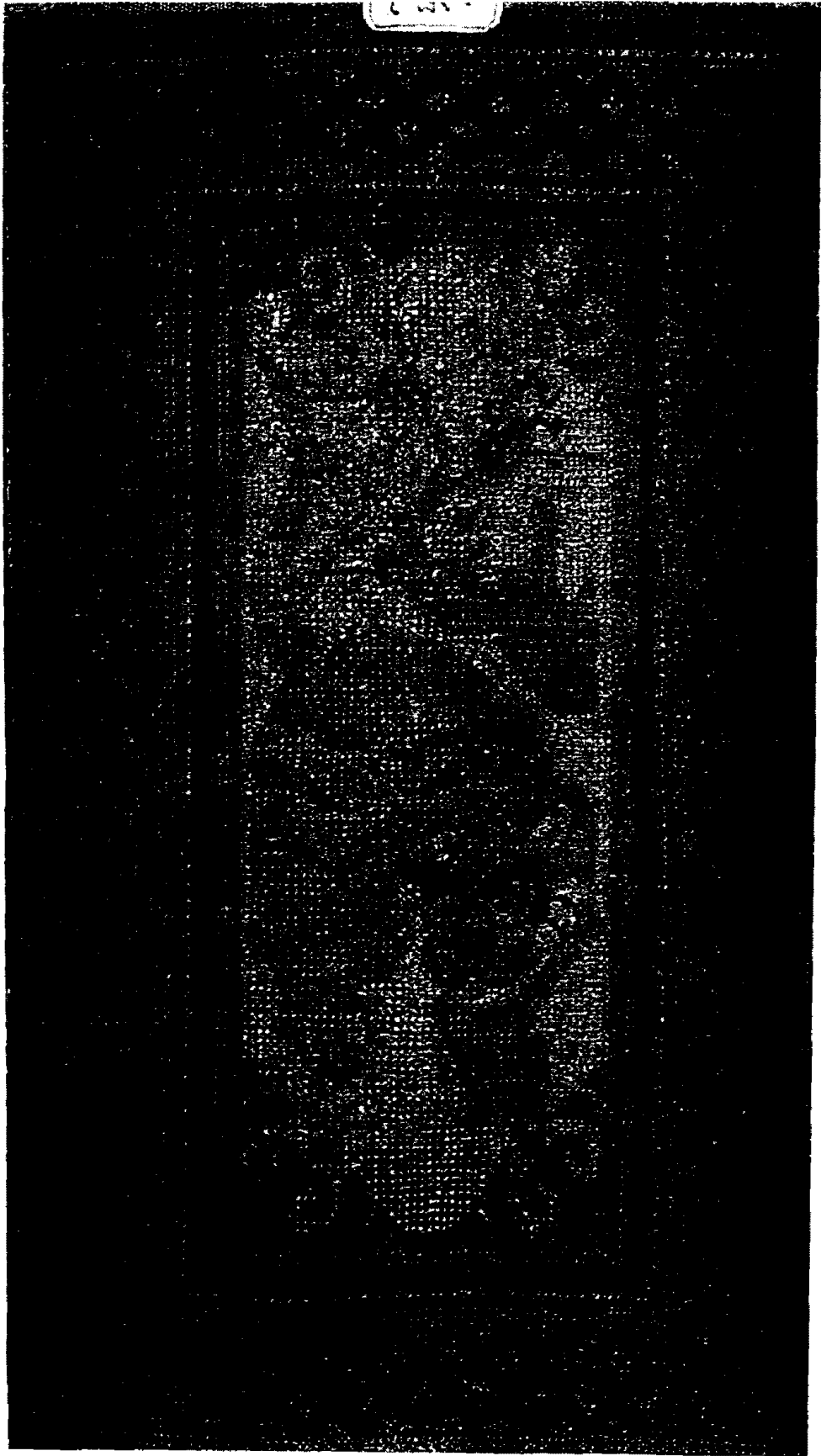
數物(carpet, Rug), 帳(벽거리)등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사진-1) 朝鮮綴이 장식된 函谷鋒



(사진-2) 毛綴墨繪付霞形獅子模様胴掛



(사진-3) 通綴梅樹虎文胴掛



(사진-4) 毛織墨繪付 花光瓦 文胴掛

長刀鋒, 函谷鋒, 放下鋒, 鷄鋒등에 朝鮮綴이 장식되어 있다.

日本에서 綴은 綴錦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日本에서 命名된 것이다.

日本에서 綴, 綴織, 綴錦이라고 하는것은 우리나라의 織成에 해당되는 것이다.

日本の「山鋒由來記」에「唐織花毯」, 「唐織筵織」 「綴氈」이 있다고 한다.

花담은 花紋毛담이고 筵織은 立毛織 (pile織)으로 된 카펫이고 綴氈은 綴織으로 제작된 카펫을 말하는 것이다.

綴氈을 우리나라식으로 文獻的 考證에 의하여 命名한다면 「織成褥」 彩담, 毛담, 五色氈이 될수있다.

日本에서는 카펫를 通綴이라고 한다. 朝鮮綴, 毛綴이라고 日本에서 命名된것은 「山鋒由來記」의 綴氈과 같은 이름에서 착상되어 祇園町의 사람들에게 의하여 口傳되어 命名된것이라고 한다.

朝鮮綴(毛綴)은 日本에서 1970년에 이미 조사되어 「祇園祭染織名品集」에 올랐다.

毛綴의 뒤에 「寬永十五年(1638) 六月二日」이라는 墨書가 있는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또 「天保十五年(1844)六月」의 墨書物도 있다.

또 「對馬」라고 墨書된것도 발견되어 對馬島主를 거쳐 朝鮮에서 日本에 건너간것도 나타나 있다. 「六典條例」의 禮典에 「接倭」條에 對馬島主에게 年例로 遣船하여 各種織物類와 기타 朝鮮의 특산물을 모낸기록이 있어 朝鮮綴의 墨書와 相通된다. 「通信使臚錄」에도 各種席物이 나타나 있다.²⁴⁾

日本에서 朝鮮綴과 茶席의 敷物조사를 마치고 日本 近江八幡에 있는 「朝鮮人街道」를 찾아갔다.

日本の 江戸時代 朝鮮通信使가 왕래하며 日本과 朝鮮이 通交되어 朝鮮綴과 같은 朝鮮의 毛物이 日本에 輸出된것이다. 朝鮮人街道였음을 조각하여 새긴 花岡岩石物앞에서 朝鮮通信使의 行列을 상상하며 朝鮮의 毛敷物의 發掘에 감사하며 사진을 한장 찍었다.

朝鮮綴은 상당수가 있는데 本考에는 代表的인것 몇점만 소개한다.(사진-2), (사진-3), (사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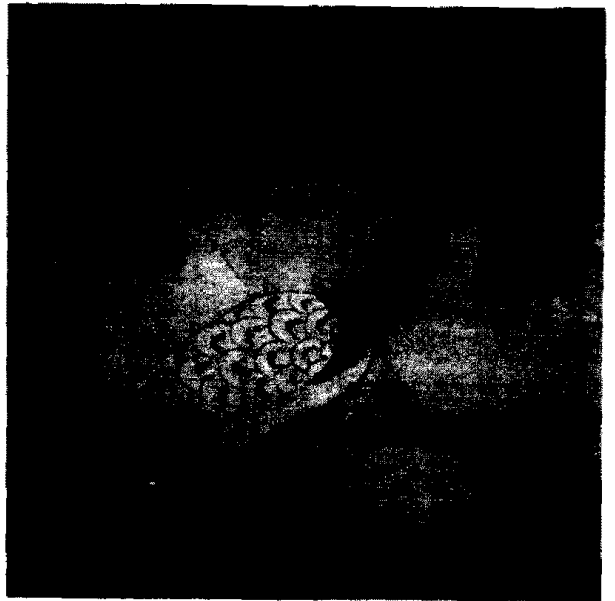
)이다.

3. 朝鮮綴의 製織樣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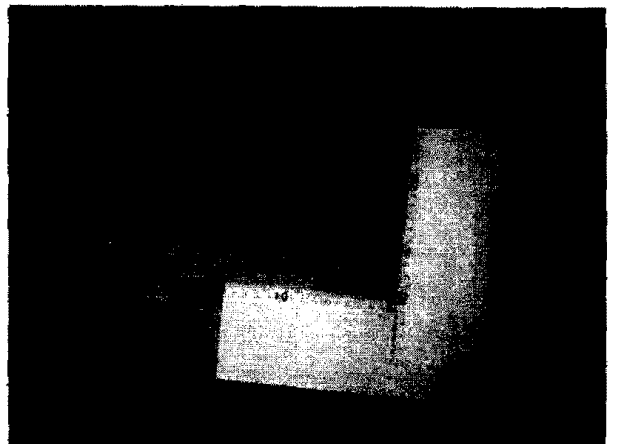
組織 紋樣을 주로하여 素材등 數種의 조사를 하였다.

本考에서는 代表的인 鷄鋒의 鳳凰紋 毛綴과 函谷鋒의 獅子紋 毛綴에 대하여 조사내용을 간략하여 정리한다.

① 鷄鋒의 毛綴



(사진-5) 鷄鋒의 毛綴



(사진-6) 鷄鋒毛綴의 확대도

(사진-5)는 鷄鋒의 毛綴의 一部分사진이고 (사진-6)은 그 확대도이다. 毛綴뒤에 「寬永十五年

24) 「通信使臚錄」

六月二日」로 墨書되어 1633年の 毛物임이 밝혀졌다.

從橫의 길이가 1.925m, 2.715m이다. 鳳凰 두마리가 앉고 날아있는 紋樣과 牡丹, 太陽雲紋, 나무가지 등이 民畫的인 풍취로 도안되어 제작되었다.

색채는 짙은갈색, 연갈색, 백색, 남색이 素朴하게 조화되어 土俗的色彩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경사와 위사의 굵기의 비가 1:2정도이고 위사는 두올을 꼬은모사를 사용하였는데 그 모사의 質은 粗梗한 편이었다.

組織은 變化平織을 기본조직으로한 타피스리技法(Tapestry, Kelim-weaving, 綴織)이다.

신라의 氍毹, 고려의 織成도 立毛(pile, Knot)되지 않고 타피스리技法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Ⅱ-1)과(Ⅱ-4)에서 文獻的으로 組織的으로 상고한 바 있다.

곧 이와같은 제작양식은 朝鮮時代의 毛毯(氍毹, 綴氍, 朝鮮綴)까지 傳承된것이다.

朝鮮民畫的인 紋樣樣式과 色彩感覺으로 朝鮮의 工藝品임을 부인할수 없을 정도로 朝鮮的 土俗性이 表現된 佳品이 있다.



(사진-7) 獅子紋毛綴 확대도

③朝鮮綴의 傳統的土俗性

朝鮮綴의 제작양식은 他地域의 타피스리(Tapestry) 기법으로 제작된 제품에서는 볼수없는 독특한 韓國의 土俗性이었으며 그 토속性은 오랜전통의 전승으로 이루어진것이 역대 필물에 대관 문헌적이고찰에서 나타났다.

토속성의 특성은 제작양식, 문양, 색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작양식상에서는 타지역의 타피스리기법에

②函谷鋒의 獅子紋毛綴

(사진-2)의 毛綴이다. (사진-7)은 이 毛綴의 확대사진이다.

큰動物(獅子?) 한마리를 가운데 두고 여덟마리의 작은사자가 상하좌우에서 덤벼드는 動的인 紋樣을 둥글, 둥글 추상적으로 客氣를 부려 표현한듯한 朝鮮人의 諧謔的 感情을 한눈에 들게한 一品의 毛綴이었다.

특히 毛綴의 地를 橫으로 能爛하게 均分한 솜씨에서 織人의 自由自制한 豪氣를 느끼게하는 毛綴이기도 하다.

色彩에 있어서도 짙은갈색, 연갈색, 素色, 藍色의 조화가 대담하면서도 무리가 없어 紋과 色彩가 一體로 調和를 이루고 있다. 墨色線은 그려넣은 線으로 대담한 구획선이다.

基本組織과 經緯系 組織連綴樣式은 타피스리제작양식이다.

역시 삼국시대의 구유 고려시대직성으로 부터 전승된 제작 양식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의한 제품과는 다른 羊毛纖維로 된 太糸로 제작되어 러그(Rug)보다는 카펫의 규격에 합치된다는 것이다.

문양양식에서는 虎, 獅子, 鳳凰, 梅花, 기타 草木, 등의 紋樣樣式이 韓國의 樣式으로 表現되어 있다. 鳳凰紋은 民畫的영역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虎紋, 獅子紋의 추상적특성은 미술적소양이 부족한 필자가 가름하기에는 너무 벽찬것이나 客氣, 諧謔, 豪氣를 能爛하게 다루며 自由自制하게

無窮한 원만함에 이르려는듯한 韓國의抽象美의 窮極의特性을 지녔다고 表現될수있는 독특한 韓國的(東洋的) 추상성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

色彩에 있어서는 紋樣과 組和된 韓國의特性을 지녔는데 특히 藍色과 他色과의 組和에서 韓國의色彩組和의 土俗性이 강하게 나타났다.

全體의인 분위기에 있어서는 素朴한 表現樣式의 特性을 들수있다.

IV. 結 論

韓國의 傳統的 毛敷物(毛毯, carpet, Rug)를 發掘하기 위하여 文獻考察과 遺品調査, 考證을 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三國時代에 이미 특산품이 제조되어 그 傳統은 朝鮮時代까지 傳承된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歷代 毛敷物名은 氈氍, 氈氍, 織成, 氈(羊毛氈, 青氈) 등이다.

3. 朝鮮時代의 毛敷物은 日本에 17~19世紀에 輸出되어 오늘날까지 多數가 祇園祭染織名品으로 日本重要民俗資料로 遺存되어 있다.

日本에서 朝鮮綴(毛綴, 綴氈)로 命名되어 있다.

4. 우리나라 傳統的 毛敷物의 製造樣式은 新羅의 縮絨된 花氈(日本正倉院所藏)과 朝鮮綴에서 發掘될수 있다.

5. 우리나라 敷物(Carpet, Rug)의 紋樣, 製織樣式은 固有特性이 있어 東洋氈物(oriental carpet, Rug)의 一場이 될수있다.

6. 카펫, 러크은 中亞아세아에서 起源된것으로 보고 있다.²⁹⁾

신라의 氈氍, 고려의 織成, 조선의 朝鮮綴의 基本製織樣式은 中亞아세아지역의 카펫, 러크의 조직양식 中の 일종과 同類인 타피스리(tapestry) 기법이고 신라의 花氈의 제조기법은 縮絨布로 제조하여 畫染된것이다.

<Summary>

A Research on specialty carpet(Rug) in ancient Kurea.

Wool carpet culture takes an important part of ancient textile culture in ancient Korea.

This research on specialty carpet culture of ancient Korea has been made from the view point of traditional textile history on the basis of historical documents and the collections.

Results are as follows.

1. Wool carpet mading technique had been introduced very early in samkuk dynasties in Korea.

2. Some of specialty ancient Korean Wool carpets can be said to be as follows:

Kuyu(氈氍), tapdung(氈氍), Jikung(織成), dam(毯), Jone(氈) and chosunchul(朝鮮綴), chehwasuk(彩畫席). These carpet are two types, tapestry weaving and felting.

3. Specially, From sam kuk dynasties the chusun dynasties These carpets were traded to china (唐, 後晋) and Japan.

29) PREBEN LIEBETAN, 「Oriental rugs in colour」, p.7,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u London), 1962.